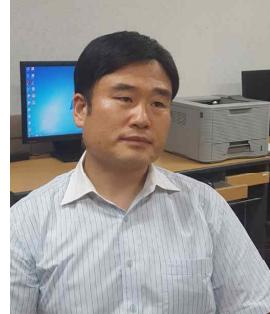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이루었다

이광열 | 부동산학과 4학년



포기하다

솔직히 말하면 학창시절엔 공부에 흥미가 없었다. 대학에 가지 않고 바로 일선에 나온 걸 후회한 적은 없었다. 자산관리회사에 입사해서 차차 경력을 쌓아가는 건 보람과 재미가 있었고 전기기사자격증을 비롯한 자격증을 따는 과정에서 나름의 공부 역시 틈틈이 해 왔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마흔 네 살의 나이에 한 가정을 이끄는 아버지이자 소장이 되었다. 직업은 안정되었고 딱히 부족할 건 없었다. 그러나 그 때 즈음. 마음속에는 대학에 대한 열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물론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며 대학에 대한 막연한 동경은 없을 수 없었지만 그 때 느낀 욕구는 강렬하고 실질적인 것이었다.

5년 전, 자산관리 중 시설관리만(PM)을 맡았던 내가 자산관리를 총괄하는 회사(FM)에 들어 갈 기회가 생겼다. 다른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이직이었다. 하지만 단 하나, 고졸이라는 학력이 내 발목을 잡았다. 결국 나는 그대로 시설관리에 머무르게 되었다. 업무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었다.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도 좋은 삶이었다. 하지만 미래를 보았다. 두 번째 기회를 눈앞에 웠을 때, 그 때도 무력하게 포기할 순 없었다. 마침 아는 선배분이 명지대로 추천서를 써 주겠다고 하셨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약간은 부푼 꿈을 안은 채, 나는 대학에 들어왔다.

사람을 엄다

처음 입학을 했을 땐 나이가 마음에 걸렸다. 젊은 나이가 아니라는 게 생각보다 나를 위축시켰던 모양이었다. 정규 대학과정을 밟고 차근차근 올라가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보며 이런 과정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돌이켜보면 모두 학교에 대한 적응 문제였다. 대학만 가면 저절로 졸업장이 따지길 바랐던 것이었을까. 대학생활은 생각보다 바빴고, 막상 시작해보니 4년이란 세월은 아득하기만 했다. 나는 애초에 수험생도 아니었고 안정적인 직장의 사회인이었기에 학생의 신분이 어색했던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점차 사라진 건 교수님들의 힘이 컸다. 우리들을 위해 무조건적인 암기나 심화가 아닌 친근하고 쉬운 설명으로 부동산학에 다가가게 해주셨다. 내용 이해를 하니 공부가 재미있어지기 시작했다. 단순하게 졸업장만 따고 떠나는 것은 나 스스로가 생각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기왕 할 거라면 잘 해내고 싶었다.

그런 다짐을 공공이 한 일이 있었다. 어쩌다가 학생회장까지 맡게 된 지라 우리 학교 전통인 세족식에 참여할 사람을 구하러 다녔다. 다들 민망한지 빼는 바람에 내가 결국 양말을 벗게 되었다. 우습고 쑥스러운 줄만 알았던 행사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힘을 얻었다. 발을 조용히 씻어주시던 교수님께서 내 꿈을 물으셨던 것이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수 있었다. PM회사에 입사하는 것. 이에 교수님은 조용히 격려해주셨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별 거 아닌 대화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아직도 그 따뜻함이 힘이 된다.

나는 ‘기운’이라는 게 정말로 있다고 생각한다. 강의도 좋고 학점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뜻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기운, 사람의 기운을 받아가는 것이 좋다. 그 기운이 강해지면 나를 끌어주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생기기 마련이다.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던 내가 학생회장을 맡게 된 것도 많은 사람들의 좋은 기운을 받는 토대가 되어 주었다. 회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협, 융통성을 익히며 인간관계에 대해 더 배웠다.

어떤 종류의 확신

이제 졸업을 1년 앞두고 있다. 공부와 회사를 병행하는 동시에 가정까지 돌봐야 하니 지난 3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다. 나름 짬을 내서 공부를 하는데 부족한 점도 많았을 것이다. 1,2학년 때는 이끌리듯 수업을 따라갔던 기억이 난다. 정신이 번쩍든 건 3학년 때였다. 실질적으로 내 업무와 관련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지난 2년간 채우지 못했던 학점을 채워가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다.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며, 어떤 부분의 공부를 내가 더 원하는지를 말이다. 단지 학점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 공부는 평생 내가 끼고 가야 할 나의 자산이며 업무의 도구나 다름이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수업에 집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제야 교수님들이 얼마나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지도 알게 되었다. 학점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었다. 뜬구름 같던 대학시절이 서서히 내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 얼마 전, 내게 다시금 기회가 생겼다. 그렇기도 꿈꿨던 PM회사의 상무님이 나를 끌어주시기로 한 것이었다. 경력도 충분했고 평판도 나쁘지 않아 걸릴 게 없었다. 그러나 그건 5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부동산학과’의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학력이었다. 이제 학력은 내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내 발판이었다. 나는 이직에 성공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이룬 것이다.

